

個人的 認識에 의한 認知體型과 實際體型과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tual Somatotype and the Cognitive Somatotype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sun University

Professor: Chung, Ok Im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정옥임

〈목 차〉

I. 서론

III. 연구방법 및 연구영역

V. 결론 및 제언

II. 이론적 배경

IV. 연구결과 및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physical consciousness of two groups, the high school girls(335) and the female college students(246), about their actual somatotype and cognitive somatotype, and to investigate it in comparison with the Röhrer Index, the BMI Index, and the Broca-Katsura Index to find if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 In the light of cognitive somatotype by self-evaluation:(1) both high school girl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recognized their weight and somatotype as normal and balanced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2) bout groups indicated that their answers were the results of their own self-evaluation, and it was shown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B. According to the actual somatotype based on Index:

(1) it was show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gnitive somatotype and the actual one when based on the BMI Index.

(2)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gnitive somatotype and the actual one of the two respective groups when based on the Broca Katsura Index.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gnitive somatotype and the actual one of the two respective groups when based on the Rohrer Index.

Finally, it was shown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 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영양의 과다 섭취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체형의 변화는 건강상의 이유 만이 아니고 의복 착용시 인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 여성들은 자기 신체의 비만 정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알고 있다면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 체형에 대한 자기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대생과 여고생을 중심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身體像(body image)에 대한 認識하고 있는 體型과 實際의 體型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實際體型에 사용된 치수는 응답자 자신들의 신체의 실제치수이며 認知體型은 응답자 자신들이 자기 身體像에 대해 스스로 知覺하고 있는 체형이다.

이 實際體型과 認知體型的 差를 알아보기 위해서 Broca-Katsura 지수¹⁾와 BMI 지수²⁾, 그리고 Röhrer 지수³⁾로 결과치를 비교하여 여대생과 여고생들이 자기 체형에 대한 자신의 認知度를 높이고 心理的 安定感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선택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인간의 체형은 연령, 성별, 인종, 시대, 개체, 생활 환경 등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Tanner는 種族間의 신체 크기에 있어서의 차이는 영양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거주지역, 기후차이, 육체적 활동의 제 환경요인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하였으며⁴⁾ Melvin도 역시 환경요인이 같은 시대의 인간 집단 사이에 육체적,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를 초래한다고 하였다.⁵⁾

국내 연구의 결과도 한국인의 體位가 다른 민족의 체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⁶⁾ 뿐만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도 인간의 성장과 발육은 유전적 요인

등의 후천적 조건에 따라 개인차, 연령차, 성차, 지역차, 시대적 차이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身體外形은 극히 개인적인 인식으로, 실제연구에서 자신의 정확한 신체적 映像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고 밝혀지고 있다.¹⁰⁾

의복착용자는 심리적으로 자기의 비만과 수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각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身體像, 즉 신체 전체는 물론 각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¹¹⁾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Kefgen과 Touchie-Specht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신체상에 만족하지 않으며 바꾸어졌으면 하고 원한다고 하였다.¹²⁾

자기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자기 이외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갖는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더우기 일반 여성들은 날씬한 신체치수를 좋아하고 있으며,¹³⁾¹⁴⁾ 좋아하고 있는 체형은 外胚葉型¹⁵⁾¹⁶⁾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심리학의 입장에서 행해진 연구여서 신체 각 부위에 대해서 상세한 고찰은 되어있지 않다.

Ostrom도 직업을 가지지 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부들의 의복의 만족도, 신체적 외모의 만족도 및 체중에 대한 관심, 자아존중감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의복의 만족도 및 체중에 대한 관심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점이 있음을 보고하였다.¹⁷⁾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체형과 視知覺(eye perception)으로 인식되는 認知體型과의 錯視의 정도를 이해하여 신체외모에 대한 만족감은 물론 심리적 만족감을 주기위한 의복구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영역

1. 연구방법

- (1) 조사내용: 자신의 신체치수 및 신체 형태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 (2) 조사대상: 광주직할시와 전남지방에 거주하는 여대생(246명)과 여고생(335명) 5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1991년 10월 20일 ~ 11월 2일까지 무선표집에 의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 (4) 자료처리: 위의 전 항목을 조선대학교 전산소에서 SPSS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영역

- (1) 여대생과 여고생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 (2) 여대생과 여고생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를 검증한다.
- (3) 체형지수에 의한 實際體型和 認知體型的 차를 검증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수의 판정결과는 단지 實際體型和 認知體型和의 차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指數間의 상호오차에 대한 비교연구는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여대생과 여고생의 실제 신체치수

〈표 1〉은 두 두집단간의 실제 신체치수이다. 키와 가슴둘레에 있어서는 여대생이 여고생 보다 크고, 몸무게와 허리둘레에 있어서는 여고생이 여대생 보다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여대생 집단보다 여고생 집단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엉덩이 둘레는 두집단중 여고생이 근소한 차로 더 크게 나타났다.

2. 키에 대한 몸무게의 자기평가

〈표 2〉는 키와 몸무게에 대한 자기평가이다. 여대생은 59.3%, 여고생은 49%가 키에 비해 몸무게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키에 비해 뚱뚱하다고 자신을 평가한 사람도 여대생 27.6%, 여고생이 36.1%

〈표 1〉 여대생과 여고생의 실제 신체치수

분류 인원수	여 대 생		여 고 생		t 값
	246명		335명		
평균 항목	M	SD	M	SD	
키 (cm)	160.65	4.06	159.28	4.71	0.000***
몸 무 게 (kg)	50.15	4.55	51.66	6.55	0.001**
가 슷 들 레 (cm)	82.71	5.88	81.68	5.88	0.037*
허 리 들 레 (cm)	63.65	3.99	64.22	4.58	0.111
엉덩이둘레 (cm)	86.69	6.11	86.63	5.63	0.767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2〉 키에 대한 몸무게의 자기평가

항 목	분 류	여대생(246명)		여고생(335명)		t 값
		N(명)	%	N(명)	%	
키에 비해 뚱뚱한 편		68	27.6	121	36.1	0.93
키에 비해 마른 편		30	12.2	38	11.3	
보 통		146	59.3	164	49.0	
잘 모르겠다		2	0.8	12	3.6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키로 본 체형의 자기평가

〈표 3〉은 키에 대한 체형의 균형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키로 보았을 때 체형이 균형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여대생이 37.8%이고, 여고생은 30.4%이며, 뚱뚱하거나 마른편이지만 균형이 맞다고 응답한 사람도 여대생 33.8%, 여고생이 43.9%로 자신의 체형 조건에 대하여 여대생 74.4%, 여고생 74.3%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신의 체형평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신의 체형에 대한 평가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에 BMI지수의 계산식과, Broca

지수를 수정한 Katsura 지수를 제시하였는데,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다수의 여대생(76.8%)과 여고생(88.4%)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듣고 자기 체형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집단간에는 $P<0.01$ 에서 유의한 차

5. 체중의 減量과 補充여부

〈표 5, 6〉은 응답자의 현재의 체중에서 減量하고자 하는 정도와 補充하고자 하는 정도를 알고자 한 것으로, 다소라도 살빼기를 원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여대생이 89.9%이고, 여고생이 97%이다. 감량정도도 3kg 이상을 원하는 사람은 여대생 47.1%이고 여고생은 68.9%가 되어 여고생이 자신의 체형을 보다 살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체중의 보충여부에서 보면 여대생의 45.1%와 여고생의 76.4%가 다소라도 체중의 증가를 원하고 있음을

〈표 3〉 키로 본 체형의 자기평가

항 목	분 류	여대생 (246명)		여고생 (335명)		t 값
		N (명)	%	N (명)	%	
키에비해 뚱뚱한편이나 균형이맞는편		50	20.3	98	29.3	0.816
키에비해 뚱뚱한 편이고 불균형		43	17.5	45	11.3	
키가 적당하고 균형적		93	37.8	102	30.4	
키에비해 마른편이나 균형이 맞는편		40	16.3	49	14.6	
키에비해 마른편이고 불균형		6	2.4	7	2.1	
잘 모르겠다		14	5.7	34	10.1	

〈표 4〉 자신의 체형평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

항 목	분 류	여대생 (246명)		여고생 (335명)		t 값
		N (명)	%	N (명)	%	
체중(kg)÷신장(m') BMI지수		10	4.1	9	2.7	0.008**
(키(m)·100)×0.9 Broca-Katsura지수		46	18.7	30	9.0	
사람들이 한 말을 듣고		43	17.5	72	21.5	
자신이 판단한 결과		146	59.3	224	66.9	
무 응 답		1	0.4			

볼때 〈표 5〉와 〈표 6〉의 상반된 응답은 面向性¹⁸⁾ 또는 反對感情並立으로 해석된다.

〈표 4〉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자기 체형에 대한 평가를 과학적 근거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집단에서의 체중 감량과 체중보충 여부는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

〈표 7〉은 키에 대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에 대한 자기평가이다.

키에 비해 가슴둘레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여대생이 58.1%, 여고생이 49.0%로 나타났고, 여대생중 키에 비해 가슴둘레가 작다고 대답한 사람은 22.4%, 여고생은 14.9%로 여대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에 대한 허리둘레에서도 두 집단 모두 보통이라고 대답한 것이 여대생은 56.5%, 여고생은 53.7%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키에 비해 허리둘레가 굵다고 응답한 것으로 여대생이 31.3%, 여고생이 29.6%로 여고생이 더 굵은 허리둘레인 것으로

〈표 5〉 체중의 감량 여부

항 목	분 류	여대생 (246명)		여고생 (335명)		t 값
		N (명)	%	N (명)	%	
1kg 이내		38	15.4	50	14.9	0.019*
2kg 이내		66	26.8	44	13.1	
3kg 이내		52	21.1	63	18.8	
4kg 이내		64	26.0	168	50.1	
무 응 답		26	10.1	10	3.0	

〈표 6〉 체중의 보충여부

항 목	분 류	여대생 (246명)		여고생 (335명)		t 값
		N (명)	%	N (명)	%	
1kg 이내		64	26.0	214	63.9	0.000***
2kg 이내		25	10.2	23	6.9	
3kg 이내		14	5.7	8	2.4	
4kg 이내		8	3.3	11	3.3	
무 응 답		135	54.9	79	23.6	

〈표 7〉 키에 대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자기평가

항 목	분 류	여 대 생 (246명)		여 고 생 (335명)		t 값
		N (명)	%	N (명)	%	
가슴둘레/키	크 다	39	15.9	65	19.4	0.071
	작 다	55	22.4	50	14.9	
	보통이다	143	58.1	164	49.0	
	잘모르겠다	9	3.7	56	16.7	
허리둘레/키	굵 다	77	31.3	99	29.6	0.537
	가 늘 다	22	8.9	35	10.4	
	보통이다	139	56.5	180	53.7	
	잘모르겠다	8	3.3	21	6.3	
엉덩이둘레/키	크 다	83	33.7	147	43.9	0.169
	작 다	21	8.5	22	6.6	
	보통이다	131	53.3	130	38.8	
	잘모르겠다	11	4.5	36	10.7	

나타났다.

키에 대한 엉덩이 둘레의 자기평가에서 여대생 53.3%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고생은 43.9%가 키에 비해 엉덩이둘레가 크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키에 대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자기평가에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은 가슴둘레에 대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의 자기평가인데, 가슴둘레로 본 허리둘레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슴둘레로 본 엉덩이둘레의 균형에 대한 평가에서는 여대생 51.2%와 여고생 44.2%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고, 엉덩이 둘레가 더 크다고 대답한 사람도 여대생 27.6%, 여고생 31.0%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허리둘레에 대한 엉덩이 둘레의 자기평가로, 특이한 점은 여고생 41.8%가 굵다고 응답한

〈표 8〉 가슴둘레에 대한 허리둘레 · 엉덩이둘레의 자기평가

항 목	분 류	여 대 생 (246명)		여 고 생 (335명)		t 값
		N (명)	%	N (명)	%	
허리둘레/ 가슴둘레	굵 다	63	25.6	58	17.3	0.005***
	가 늘 다	32	13.0	50	14.9	
	보통이다	128	52.0	168	50.1	
	잘모르겠다	23	9.3	59	17.6	
엉덩이둘레 /가슴둘레	크 다	68	27.6	104	31.0	0.298
	작 다	23	9.3	10	3.0	
	보통이다	126	51.2	148	44.2	
	잘 모르겠다	29	11.8	73	21.8	

〈표 9〉 허리둘레에 대한 엉덩이둘레의 자기평가

항 목	분 류	여 대 생 (246명)		여 고 생 (335명)		t 값
		N (명)	%	N (명)	%	
허리둘레에 비해 크다		82	33.3	140	41.8	0.627
허리둘레에 비해 작다		28	11.4	20	6.0	
보 통 이 다		116	47.2	124	37.0	
잘 모르겠다		20	8.1	51	15.2	

반면, 여대생은 보통이 47.2%, 굵다고 응답한 사람이 33.3%이다. 이는 보다 가는 허리를 원하는 것이라 볼수 있는데,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7. 指數로 본 實際體型的의 評價.

응답자 자신들의 실제 신체치수가 〈표 1〉에서 제시되었고, 인지체형에 대한 견해도 고찰되었다.

실제 신체치수가 자기평가에 의해얼마나 인지체형에 접근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管養指數, 즉 BMI지수(Body-mass index)와 Broca-Katsura지수, 그리고 Rohler지수로 그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BMI지수란 체중(kg)÷신장(m)²으로 계산하며, Broca-Katsura 지수란, Broca 지수가 키(cm)-100인데, 이는 미국인 계산방법으로 동양인에게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Katsura가 이를 수정한 것으로 표준몸무게 = (키cm) - 100)×0.9 이다.

Röhler지수는 몸무게(kg)/(키kg)³ × 10⁷로 계산하는데 이들의 판정결과는 〈표 10, 11, 12〉에서와 같다.

〈표 10〉은 BMI지수로 본 여대생과 여고생의 영양지수 판정결과이다.

여대생중 허약 판정이 70.32%로 단연 높았는데, 〈표 2〉의 키에 대한 몸무게의 자기평가에서 59.3%가 보통이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정상은 29.62%인데 〈표 2〉와 〈표 10〉을 비교해보면 29.68%가 '허약'을 '정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실제체형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 아닌데도 키에 비해 뚱뚱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27.6%로 나타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수 있다.

여고생도 59.14%가 '허약'으로 나타났고, 42.38%가 '정상'으로 실제체형에서 나타났는데, 認知體型에서는 11.3%가 키에 비해 마른편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40.64%가 實際體型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인지체형에서의 49.3%가 키 평가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했는데, 실제 BMI지수에서는 42.38%가 '정상'으로 나타나 여고생에 있어서는 認知體型과 實際體型 사이에 많은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인지체형에서, 키에 비해 뚱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6.1%인데 비해 실제체형에서는 '과

〈표 10〉 BMI 지수로 본 체형평가

분 류	판 정	여 대 생 (246명)				여 고 생 (335명)			
		N(명), %	M	SD	t 값	N(명), %	M	SD	t 값
20 이하	허 약	173(70.32)	18.57	0.92	0.0001 ^{***}	174(51.94)	18.66	0.92	0.0001 ^{***}
20~24.9	정 상	72(29.62)	21.43	1.27		142(42.38)	21.62	1.16	
25~29.9	과체중	1(0.40)	26.16			19(5.67)	26.22	1.48	
30 이상	비 만								

체중'이 5.67%로 나타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1〉은 Broca-Katsura 지수로 본 여대생과 여고생의 체형이다.

여대생에 있어서 인지체형의 여림과 실제체형의 '허약'사이에서 71.94%의 큰 차를 보이고 있고, 인지체형에서의 '보통'과 실제체형에서의 '정상'사이에는 48.33%의 많은 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있다. 이는 실제체형의 '과체중'에서도 같다.

여고생은 인지체형의 '마른편'과 실제체형의 '허약' 57.35%의 차이와 인지체형에서의 '보통'과 실제체형에서의 '정상'에서는 29.0%의 차이를 인지체형의 '뚱뚱한편'과 실제체형의 '과체중'과 '비만'은 24.77%의 차를 보이고 있고,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표 12〉는 응답자들의 실제치수를 Röhler지수로 알아 본 결과이다. 여기에서도 여대생의 인지체형인 '마른편'과 실제체형에서의 '허약'에는 37.8%의 차이를, 인지체형의 '보통'과 실제체형의 '정상' 사이에서는 11.74%, 또 인지체형에서의 '뚱뚱한편'과 실제체형에서의 '비만' 사이에는 25.17%의 인식의 차를 보이고 있음을 〈표 2〉와 비교해 봄으로서 알수 있다.

여고생에서는 19.44%가 인지체형의 '마른편'과 실

제체형의 '허약'에서 차를 보이고 있고, 인지체형의 '보통'과 실제체형의 '뚱뚱한편'과 실제체형의 '비만' 사이에서는 28.0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도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은 指數別로 본 여대생과 여고생 두 집단간의 비교이다.

BMI 지수에서는 두 집단간에 $P < 0.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고, Broca-Katsura지수에서는 $P < 0.05$ 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Röhler 지수에서는 $P < 0.5$ 에서 두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수있다.

이외에 지수별로 본 실제체형과 〈표 2〉에서의 인지체형에서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指數別로 본 두 집단과 두 집단간의 비교는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논의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응답자의 신체의 實際值數로 본 體型과, 자기인식에 의해 평가하고 있는 認知體型 사이에 여대생 집단과 여고생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대생 246명과 여고생 3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

〈표 11〉 Broca-Katsura 지수로 본 체형평가

분류(%)	판정	여대생 (246명)				여고생 (335명)			
		N (%)	M	SD	t 값	N (%)	M	SD	t 값
0 이하	허약	207(84.14)	-10.79	5.28	0.0001***	230(68.65)	-8.93	5.57	0.0001***
0~9.9	정상	27(10.97)	4.08	3.38		67(20.00)	4.76	2.97	
10~19.9	과체중	11, 4.47)	13.4	2.86		24(7.16)	14.43	3.06	
20 이상	비만	1 (0.04)	35.80			14(4.17)	27.84	6.98	

〈표 12〉 Röhler 지수로 본 체형평가

분류	판정	여대생 (246명)				여고생 (335명)			
		N (%)	M	SD	t 값	N (%)	M	SD	t 값
1.2 이하	허약	123(50.00)	1.13	0.05	0.0001***	102(30.74)	1.13	0.05	0.0001***
1.2~1.5	정상	117(47.56)	1.28	0.08		205(61.19)	1.31	0.08	
1.5 이상	비만	6(2.63)	1.59	0.11		27(8.05)	1.62	0.10	

(표 13) 지수별로 본 여대생과 체형비교

지 수	분전 류	N (명)	M	SD	t 값
B M I	여 대 생	246	2.30	0.46	0.0000 ^{***}
	여 고 생	335	2.48	0.50	
Broca-Katsura	여 대 생	246	2.15	0.37	0.0301 ^{**}
	여 고 생	335	2.23	0.51	
Röhler	여 대 생	246	2.45	0.55	0.1052 [*]
	여 고 생	335	2.53	0.64	

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自己評價에 의한 認知體型에서,

① 身體像에 관한 자기평가에서 여대생 74.4%, 여고생 74.3%가 자기 신체에 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수있으며,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인지체형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서는 판단의 과학적 근거가 없이, 자신이 판단하거나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③ 체중의 감량 및 증량여부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2) 指數로 본 實際體型에서.

① BMI지수로 본 여대생과 여고생의 인지체형과 실제체형 사이에는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② Broca-Katsura 지수에서는 두 집단간의 인지체형과 실제체형 사이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③ Röhler 지수로 본 두집단간의 인지체형과 실제체형에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④ 집단별로 본 인지체형과 실제체형에서도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며, 지수별로 본 집단 사이에서도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여대생과 여고생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체형, 즉 인지체형과 실제 응답자 자신들의 신체치수로 본 실제체형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광주, 전남지방에 거주하는 여대생과 여고생 상당수가 과학적 근거없이 자기상에 대해 錯視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

복선택이나 의복착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수 있을 뿐만아니라 의복에 대한 불만족, 나아가서는 신체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할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체형에 대한 자신의 認知度를 높여야 함은 물론 의복구성에서도 심리적 만족감을 줄수있는 디자인이 배려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VI. 참고 문헌

- 1) 김진호의, 한국체질인류학처지 No1.2, No1, 1989, p6.
- 2) 동아일보, 1990. 11월 3일.
- 3) 공업진흥청, "산업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체위조사연구" 1980. 6.
- 4) 김진호의, 한국인 체격과 성장발육에 관한 연구. 한국체질인류학회지 No1, 2, No1, 1989, p5.
- 5) 정옥님, 인체와 의복공학, 서울, 수학사, 1990, p61.
- 6) Phglis B, Eveleth and J. M. Tanner, world wide Variation in Human Growth, London, Co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p 241~246.
- 7) Carol Ember and Melvin Ember, Cultural Anthropology Prentice Hall Inc, 1977. pp6~8.
- 8) 金仁達, 한국인 체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자연계) 제3권, 1965. pp 75~135.
- 9) 金東昌, 청년기 한국여성의 한국여성의 체질인류학적 연구, 서울의대잡지, 제3권, 1962. pp124~144.
- 10)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Individuaty in Cl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 Y.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6. p206.
- 11) 依田新, 新教育心理學事典, 金子書房, 東京, 1977.
- 12) Kefgen and To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2nd ed), N. Y.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6. p.206.
- 13) S. M. Jourard and P. E. Secord. : J. Consult, Psgcol., 18. 1954. p184.
- 14) S. M. Jourard, J. Abnorm Soc, Psgcol., 50, 1955, p243.
- 15) A. A. Sugarman and F. H. Trenton : J. Pers., 32, 1964. p380.
- 16) R. M. Lerner, S. A. Karabenick and J. C. Stuart : J. Psgcol, 85, 1973. p119.
- 17) Olstrom, J. M., "Satisfaction with clothing and Personal Appearance Related to Self-Esteem and Participation in Activities among Full-time Home-mak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Oregon state university,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1972. p51
- 18) 趙貞嬭저 服裝原論 수학사, 1990. p.68
- 19) 이기열저 기초영양학, 수학사, 1990. p131